

# 전통지식 무형유산적 가치 조명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21~23일 온라인 개최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과 ‘2022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가 21~23일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가 주관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각국 무형유산의 현황을 공유하고, 그 보전·전승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로, 이번에는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특히 전 세계 12개국 30여 명의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참여,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 전승사례들이 다채롭게 소개될 예정이다.

포럼의 주제는 ‘전통지식,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유와 실천’,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의 전통 관계지식과 문화’다. 각국의 지역 공동체가 생산하고, 공유해 온 전통적 지식의 가치와 역

할을 논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축적해 온 대표적 전통지식인 전통적 수리(水利)방식, 전통적 치유지식을 탐색한다. 포럼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발표자와 관람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과 ‘2022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세계화 및 도시화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전통지식의 무형유산적 가치에 주목하며,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생산, 의료, 생활 관련 전통지식이 인류 공동체의 생존, 번영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조명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국립무형유산원(www.youtube.com/c/국립무

형유산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그리고 ‘전주 MBC’에서 생중계된다. 또한 온라인 메타버스 ZEP(<https://zep.us/play/2mYqB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사전 참가 접수자에 한 해 포럼 안내장이 송부될 예정이다. 접수는 포털사이트(<https://OChworldforum.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포럼과 학술대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국립무형유산원(063-280-1512)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사무국(063-280-97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보호·활용의 국제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국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무주 최북미술관 기획전 ‘보편적 시선’

20일~11월 13일 사진작가 6명 작품 전시

무주군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최북미술관 기획전 ‘보편적 시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사진전으로 고정남(2022 제23회 단원미술제 선정 등), 김영점(2013~2019 디카로 보는 부산 공모전 선정 등), 김영경(2019 돈의문박물관 마을전시 공모 선정 등), 김지연(공동체박물관기념미소 & 서화동사진미술관 관장 등) 손이숙(버지니아의 방 등 전시), 장근범(이런 가족 같은 가족 전시회 등) 등 중앙과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6명의 작품 36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7일에는 오후 3시부터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세한 작품 설명을 듣고 작품에 대해 작가와 관객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우리의 일상이 묻어낸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치유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무주군 최북미술관 전경

“보편적 시선에 담긴 작품들이 관객들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시작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정신을 믿고 사람과 환경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생각하며 촬영했다는 고정남 작가는 ‘만경강’ ‘김제평야’ ‘호남평야’ 등의 작품 속에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담았으며 김영점 작가는 대표작 ‘유정천 리 묘지 가는 길’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동백꽃 붉게 핀 묘지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필사노트, 묘지 설계도 등의 유품을 통해 아버지의 세월을 반추하는 작가의 절

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선보이는 김영경 작가는 휘어진 골목길과 낡고 오래된 집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도시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도시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 김지연 작가의 ‘영산강’은 작가가 부르는 고향의 노래가 아닐까?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낯선... 사적인 연민과 회귀의 장소인 영산강을 영원으로 남긴 작가의 마음이 풍경 속 슬슬함으로 전해진다.

손이숙 작가는 여성의 삶을 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들여다봤다. 가족 안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의 공간을 갖기 소품과 풍경으로 담아낸 작가의 시선은 단순한 ‘방’을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심리적 공간으로 느끼게 한다.

장근범 작가의 ‘아시아 여성 시리즈’는 아시아 각 나라 여성들을 만나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류학자 운수현 씨와 함께 진행한 베트남 시리즈가 선보인다. 그 중 ‘신(新)여성’에는 경제적 변화를 통해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변화로 다변화된 베트남 여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무주=전문선 기자

## 3인 3색 아트콘서트 ‘완판본 전주곡’ 문화 행사 21일 진행

완판본문화관에서는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3인 3색 아트콘서트 ‘완판본 전주곡(前奏曲·Prelude)’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판본문화관과 변자연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서양음악, 시각예술, 목판인쇄 각 분야의 아티스트가 모여 바흐의 음악을 듣고(play), 그리고(print), 기록(print)하는 방법을

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이다희 작가는 2011년부터 ‘음악번안시스템’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완판본문화관과 함께 협업을 시작했다. 완판본문화관과 이다희 작가의 ‘음악번안시스템’은 오선지로 연상되는 서양 악보법이 아니라 바흐의 음악 기호를 목판으

로 판각, 전주 한지에 인쇄, 대체로운 채색을 더해 완판본 악보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특히 ‘음악번안시스템’은 서양의 고전음악과 한국의 전통기록 매체(한지, 완판본)와의 융복합을 시도했으며, 바흐의 오래된 음악을 전주의 완판본 판각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예술적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결과물은 2019년 전주팔복예술공장의 임주보고전시를 시작으로 2022년 금호미술관까지 다수의 국내외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 판’ 공연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된 김주신 씨 무대 오늘 진행

전주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주신 씨의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 판’ 공연이 14일 저녁 7시 30분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 판’은 서양의 관악기, 전통 국악기(태평소·피리) 등과 소리가 함께 꾸미는 무대로, 판소리 춘향가를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해 브라스와 판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퓨전 창작극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김주신 씨는 “기존의 브라스 앙상블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클래식과 국악, 두 장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며 “올해 전주문화재단의 전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을 통해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재단 문예진흥팀장 김경명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올해 전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첫 공연인 김주신 씨의 무대를 전주시민에게 선보이게 돼 기대가 크다”며 “공연을 통해 김주신 씨가 공연예술가로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 지역예술계의 등용문 역할과 신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전주를 연고로 활동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300만 원부터 7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무정산 시상금 형태로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전주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연습공간 및 공연장 등의 공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김주신 씨의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 판’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예진흥팀(070-7711-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한국화가 남성희 작가 ‘작은 그림’ 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23일까지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은 14~23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실에서 한국화가 남성희 작가의 ‘작은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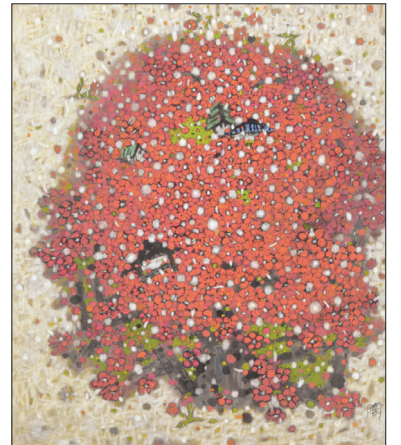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작은 그림’을 주제로 한 남성희 작가의 8회 개인전으로, 그동안 작품의 소재로 자주 다뤄왔던 고향의 산과 들녘의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을 본인만의 개성있는 색감과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남 작가의 작품은 바탕화면에 활토를 바르고 그 위에 안료를 얹어 덮은 후 다시 닦아내는 정성스런 기법을 통해 미묘한 색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독자적 방식을 통해 채색화의 표현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 작가는 “이번 전시의 화두는 고향의 색채에 주안점을 뒀다”며 “법랍하는 색채의 흥수시대, 혼란스럽지 않은 차분한 색으로 사색을 유



남성희 작가 작품



남성희 작가 작품

발하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늑한 서정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